



2025년 희망찬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권기(權紀) 1096년 음수사원(飲水思源)의 한 해 되시길



권영창 대중회 회장

존경하옵는 100만 족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팎으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 족친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태내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물을 마시며 근원을 생각하는 음수사원(飲水思源)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2024년을 되돌아보니 참으로 소중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안동권씨 전국 청장년체육대회가 안동권문의 분향인 안동에서 약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안동권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벅차고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대회를 개최한 권철환 안동총친회장을 비롯하여 권태형 능곡회 회장과 능곡회 회원, 부녀회 회원, 안동중친회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능동장학회 이사장으로 능동장학회를 운영하셨던 권정달 전 이사장께서 10월 23일 이사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능동장학회를 대중회에서 이관받아 대중회 회장인 제가 이사장직에 취임하고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관에 따라 대중회에서 능동장학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신 충장공 권을 도원수의 영정이 지난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가표준영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표준영정으로 지정되기까지 애쓰신 권해옥 전 회장과 대중회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이 안동권문의 역사적 숙원사업으로 다가옵니다. 이를 위해 대중회에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 23일 권오창 화백 연구실에서 미술사와 복식사 전문가와 영정을 제작할 담당 화백과 함께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조께서 남기신 율시와 시조 태사공으로 추정되는 그림을 두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서체가 신라시대 서체인지, 만약 그림의 원본이 있다면 종이는 어느 시대 종이인지를 반대 측정을 통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으나, 그림에도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증빙이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후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회에서는 다가오는 2029년 권기 1100년을 맞이하여 능동성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하여 권기창 안동시장, 박성만 도의회 의장, 봉정사 주지 스님, 학봉종택 등을 방문하여 능동성지 조성 사업에 협조해 줄 것

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진척된 사항이 없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100만 족친여러분 권기 1096년이 되는 2025년 을사년에는 지난해 추진했던 사업은 결실을 맺게 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조 태사공 영정 제작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보광고를 통해 100만 족친들에게 시조 태사공 영정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안동권문 모두의 승조와 애족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영정 제작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안동권씨 대중회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차까지 회의를 진행하며 숙의하는 절차를 마쳤습니다. 년 초에 각 조항에 대해 축조심의하여 정기총회 이전까지는 보다 내실있는 정관으로 개정을 완료하여 정기총회 때는 공포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능동장학회를 보다 규모있게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장학회의 장학기금을 늘려 대학생 등 자라나는 젊은 청년 후손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족친 여러분께서도 능동장학회에 관심을 가지고 기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넷째, 지난해 추진했던 능동성지 조성 사업이 한 걸음 더 진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추진목표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경상북도와 안동시를 비롯해 도의회, 봉정사 등에서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추진전략을 재검토하여 반드시 목표달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젊은 청년들이 대중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별 또는 연령별로 홍보대사를 선임하여 승조정신과 애족사상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에서 개최되는 제34회 안동권씨 청장년체육대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동권문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체육대회가 차기 대회 개최를 신청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구는 감소 추세이고 나이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 예전처럼 한 지역에서 행사를 주최하기에는 사실상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관계자들께서 중지와 지해를 모아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여 우리 안동권문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친애하는 100만 족친여러분 끝으로 권기 1096년 을 한 해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뜻하시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앙망합니다. 대중회 역시 안동권문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승조정신을 드높이며 안동권문의 화합과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권영창 대중회 회장

충장공 권을 도원수 국가표준영정 지정



충장공 권을 도원수 영정이 지난 11월 27일 국가표준영정으로 지정되었다.

지정번호 제102호. 2022년 1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가표준영정 심의에 최종 통과된 후 2년여 만에 공식적으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권을 도원수는 국가표준영정으로 지정된 안동권문의 최초의 선현이 되었다.

권해옥 회장은 재임 시에 권을 도원수 영정이 도난당한 지 20여 년이 흘렀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고양시를 항의 방문하여 고양시장에게 다시 제작하여 봉안할 것을 요구한 결과 고양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권오창 화백이 영정을 제작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마침내 국가표준영정으로 지정된 것이다. 앞으로 고양시는 다시는 도난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표준영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권행완 편집국장

2025년 1월 임원 회비 납부 내역

<임원회비>

부회장	
권순구 상임위원(원주)	1,000,000
권오상 상임위원(안양)	1,000,000
권오춘(양평)	1,000,000
총무위원	
권병호(원주)	200,000

합계 : 3,200,000원
※ 순서는 납부 순입니다.

안동권씨대중회



안동권씨대중회 권영창 회장 외 임직원 일동